

학력별 저임금 노동시장

정 성 미*

I. 머리말

우리나라 저임금근로 비중은 OECD 평균(2010년 기준 16%)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여성, 저학력, 고령층에 저임금근로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저임금 탈출과 재진입을 반복하고 있다는 데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임금근로 특징을 2012년 한 시점과 10년 전인 2002년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2012년의 현황을 성별·연령별·학력별로 나누어 저임금근로의 특징과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2002~2012년 변화를 성별·연령별·학력별로 저임금근로 비중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Ⅱ. 2012년 성별 학력구성에 따른 저임금근로 특징

1. 학력구성별 저임금근로 비중 변화

2012년 8월 기준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24.8%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 이후 10년간 완만한 상승과 하락을 보이며 23~27%의 높은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높은 수준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2012년 8월 기준 남성 저임금근로 비중은 15.5%, 여성 저임금근로 비중은 37.1%를 기록해 여성 저임금근로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남성은 10년간 15% 수준을, 여성은 40%를 하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40%에 가까운 근로자가 저임금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표 1〉 성별 저임금근로 비중 추이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2002	23.2	12.9	38.1
2003	24.1	13.1	39.7
2004	26.3	15.4	41.5
2005	26.6	15.6	41.7
2006	25.8	15.6	40.0
2007	27.4	16.6	42.3
2008	26.0	16.2	39.6
2009	26.2	16.7	39.1
2010	26.3	16.3	39.8
2011	22.6	13.7	34.5
2012	24.8	15.5	37.1

주: 1) 세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자를 저임금근로로 정의.

2)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임.

3) 각 연도 8월 기준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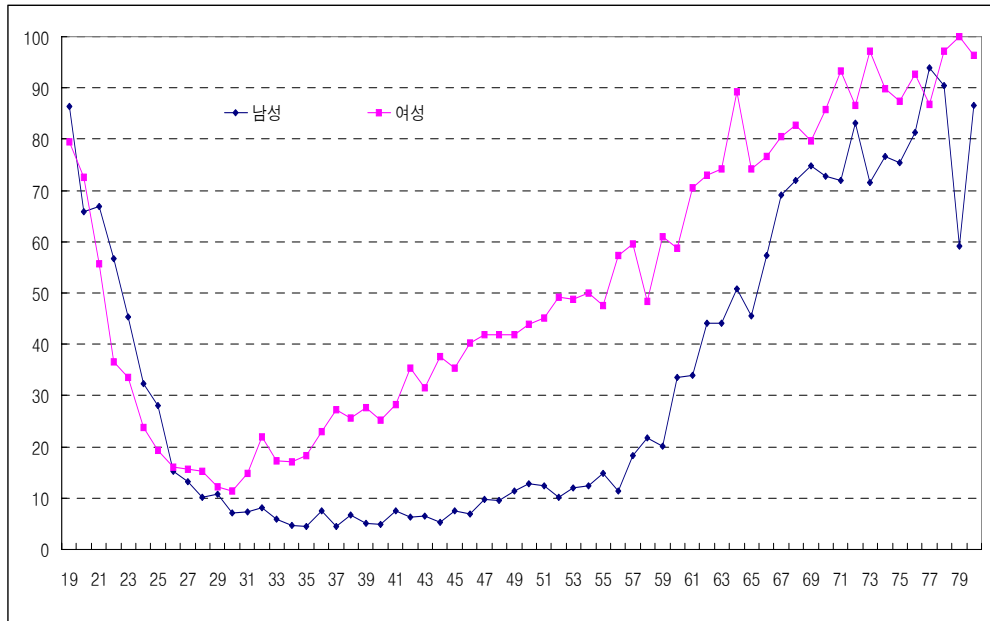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성별 저임금근로 비중 차이를 연령으로 나누어 보면, 남녀 간 뚜렷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저임금근로 비중은 29세 이전까지 남녀 모두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급격히 감소해 10% 수준까지 감소하지만, 30세를 기점으로 남녀의 저임금근로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아주 완만한 U자 형태를 보이며 고연령에서 꼬리가 긴 반면, 여성은 30세가 변곡점이 된 V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남성 저임금근로 비중은 10% 미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30세부터 4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10% 미만을 유지하다 6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여성 저임금근로 비중은 30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늘어날수록 저임금근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30세에서 49세 남성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7.1%→11.4%로 4.3%p 증가한 반면, 여성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11.4%→41.8%로 30.4%p 증가했다. 남녀의 저임금근로 비중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본격적인 은퇴시기인 50대 이후이다. 남성 저임금근로 비중은

[그림 1] 연령별·성별 저임금 비중 추이(2002년 8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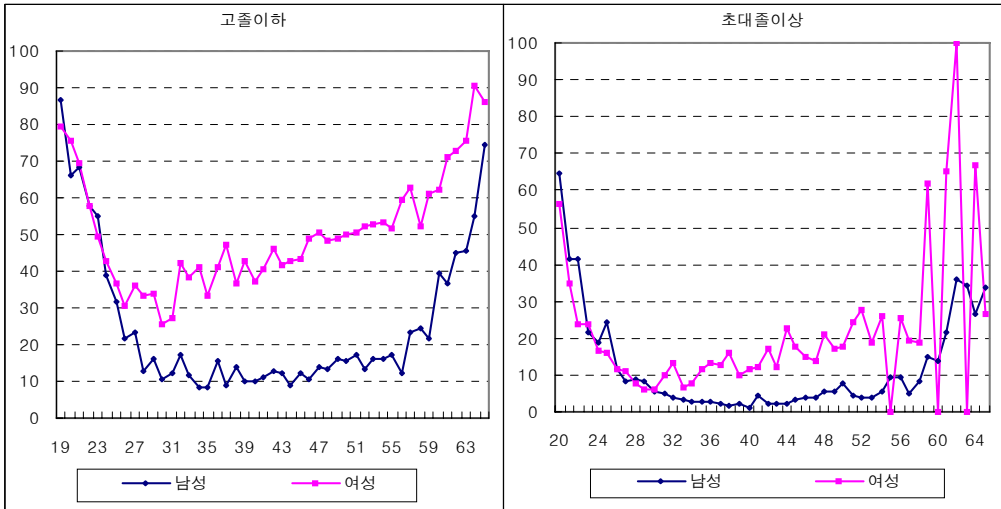
주 : 1) 19세 이하를 19세로 80세 이상을 80세로 합쳐서 나타냄.
 2) 각 연령별 임금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50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50대 후반부터 연령이 늘어날수록 급격히 증가해 60대 후반부터는 남녀 격차가 근소하게 좁혀지고 있다.

학력수준을 고졸 이하 저학력과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으로 나누어 [그림 1]을 다시 그려보았다(그림 2 참조). 크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저학력은 고학력에 비해서 남녀 모두 저임금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남성은 저학력과 고학력 모두 완만한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저학력에서 V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고학력에서는 V자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저학력 여성의 저임금 비중 증가가 V자 형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그림 1]의 30세→49세의 여성 저임금근로 비중 변화는 11.4%→41.8%로 30.4%p 증가했는데, 이를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저학력은 25.5%→49.1%로 23.6%p 증가하였고, 고학력은 6.2%→16.9%로 10.7%p 증가했다. 이는 학력 내 저임금 비중 변화로는 전체 저임금 비중 변화 30.4%p의 1/3(고학력자 기준)~2/3(저학력자 기준)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내에 고학력자는 줄고 저학력자는 증가하는 학력 구성변화가 V자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는 뜻이 된다.

[그림 2] 학력별·연령별·성별 저임금 비중 추이(고졸 이하(좌), 초대졸 이상(우)) (단위 : %)



주 : 1) 19세 이하를 19세로, 65세 이상을 65세로 합쳐서 나타냄.
 2) 각 연령별 임금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 비중임.
 3) 초대졸 이상 55세 이상 여성은 저임금근로자 수가 많지 않아 저임금 비중 추이의 변동이 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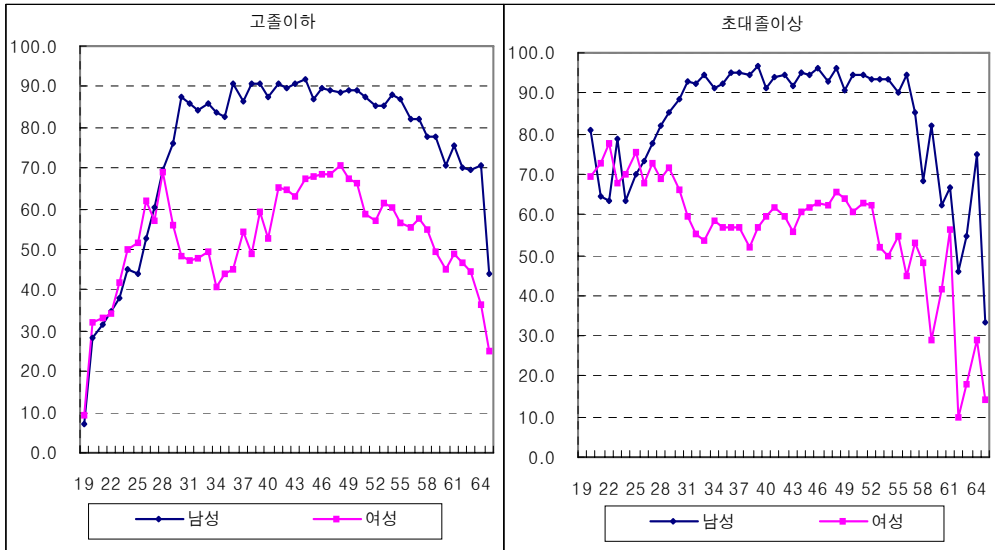
2. 학력구성별 노동시장 참여 변화

핵심연령에서 여성 저학력자가 고학력자에 비해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저임금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장기간 남아 있는 남성과 달리 여성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장의 진입·퇴장활동이 달라지는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 보통 30대 초·중반 여성은 출산과 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이후 재진입하는 M자 형태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

먼저 여성의 학력별 고용률을 보면, 고졸 이하 저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비교적 뚜렷한 M자 형태로 나타나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에서는 40대에 M자 형태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참조). 평균적으로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시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고용률 하락현상은 저학력과 고학력 모두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고졸 이하 저학력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49세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해 고용률이 약 30%p 증가를 보이며 70%에 육박하는 반면, 고학력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10%p 증가에 그치며 55~65% 구간을 장기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핵심연령의 고학력 여성은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한 이후 이탈하지 않고 일정부분을 유지하는 반면, 저학력 여성은 꾸준히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학력별·성별·연령별 고용률(고졸 이하(좌), 초대졸 이상(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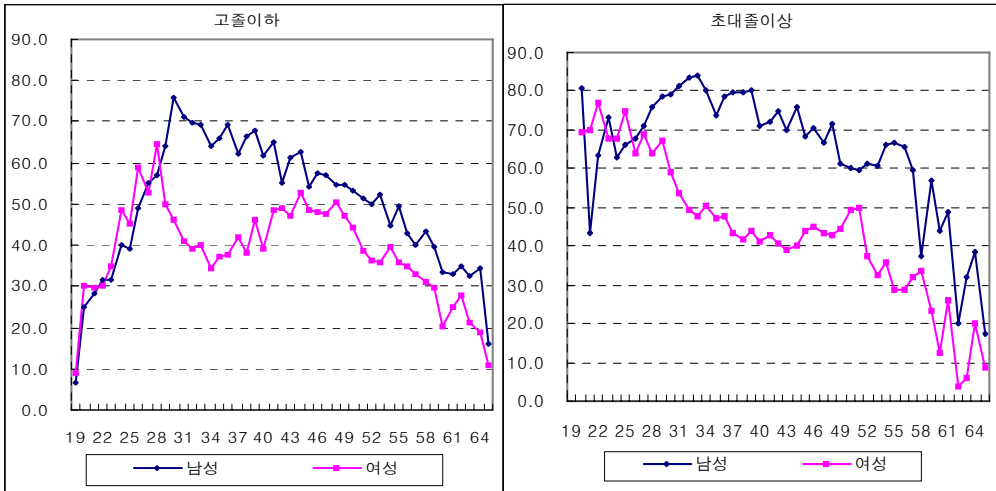
주 : 1) 19세 이하를 19세로, 65세 이상을 65세로 합쳐서 나타냄.
 2) 각 연령별 임금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 비중임.
 3) 초대졸 이상 55세 이상 여성은 저임금근로자 수가 많지 않아 저임금 비중 추이의 변동이 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한편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임금근로자 비중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림 4]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한다. 남성 고용률은 학력에 상관없이 핵심연령 구간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과는 달리 임금근로자에서는 30대 초반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임금근로(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학력별 양상은 남성과 다르다. 저학력 여성의 경우 핵심연령대인 35세에서 49세에 임금근로 비중이 약 15%p 증가하고 이후 연령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학력 여성은 35세에서 43세까지 임금근로 비중이 감소하다 이후 51세까지는 증가하고 52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학력 여성에서 연령이 늘어날수록 저임금 비중 추이가 상승한 것을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저학력 여성은 상당수가 저임금부문으로 진입하게 될 수 있다. 한편 고학력 여성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유리천장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이후 고임금이나 괜찮은 일자리의 재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근로로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학력별·성별·연령별 임금근로 비중(고졸 이하(좌) 초대졸 이상(우))

(단위 : %)



주 : 1) 19세 이하를 19세로, 65세 이상을 65세로 합쳐서 나타냄.
 2) 생산가능인구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3. 학력별·일자리특성별 저임금근로

일자리 특성을 사업체 규모, 산업, 직종으로 나누어 저임금 고용을 살펴보도록 한다(표 2 참조). 규모별로 본 성별·학력별 저임금근로자 구성비는 성과 학력에 무관하게 소규모 사업장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저임금 발생비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저학력 여성은 10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퍼져 있어 저임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학력별 저임금근로자 구성비를 산업별로 보면, 저학력 남성의 저임금근로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건설업 등에서 많고, 저학력 여성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기타에 몰려 있다. 고학력 남성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광업·제조업에 많고, 고학력 여성은 사회서비스업에 가장 많아 34.9%가 몰려 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도 많이 있다. 성과 학력에 상관없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몰려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발생비를 산업별로 보면, 저학력 남성은 농림어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등에 절반에 가까운 임금근로자가 저임금근로 상태를 보이는 반면, 고학력 남성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저학력 여성은 전 산업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은 편인데 특히 고령층이 집중된 농림어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등, 사회서비스업 등은 절반 이상이 저임금근로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인 고학력 남성과 달리 고학력 여성은 농림어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에서 높은 저임금근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성별·학력별 저임금근로자 구성비를 직종별로 보면, 저학력은 남녀 모두 단순노무직과 서비스·판매종사에 많은 반면, 고학력은 남녀 모두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 서비스·판매업에 몰려 있다. 직종별 저임금 발생비를 보면, 저학력 남성과 고학력 여성에서 단순노무직에서 절반 이상, 서비스·판매업에서 38% 이상이 저임금근로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저학력 여성은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종에서 저임금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저임금 취업자 구성비와 발생비(2012)

(단위 : %)

		구성비				발생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저학력	고학력	저학력	고학력	저학력	고학력	저학력	고학력
전 체		100.0	100.0	100.0	100.0	24.9	5.7	53.4	13.9
규모	1~4인	36.6	41.0	41.9	36.5	44.2	25.2	69.7	36.2
	5~9인	25.5	21.8	21.4	23.1	31.1	9.5	58.9	21.0
	10~29인	19.9	17.6	21.0	19.6	21.2	4.6	49.3	11.5
	30~99인	10.4	9.6	11.4	12.7	16.1	2.5	37.5	7.1
	100~299인	5.6	5.2	3.1	5.1	14.7	2.2	28.8	7.4
	300인 이상	1.9	4.7	1.3	3.0	4.8	1.3	17.2	3.3
산업	농림어업	2.0	0.4	2.5	0.1	46.3	7.8	93.0	72.4
	광업·제조업	9.2	7.3	15.0	6.2	8.4	1.9	42.1	11.4
	건설업	13.2	5.3	0.8	1.2	21.1	3.8	34.6	8.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8.4	26.0	38.6	28.1	43.1	11.9	66.2	28.1
	사업시설관리 등	16.1	7.9	9.9	4.6	48.9	13.7	59.4	19.6
	사회서비스업	9.2	11.1	17.5	34.9	26.2	3.6	47.7	10.3
	기타	22.0	42.1	15.7	24.9	24.1	6.5	44.7	13.2
직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9	27.0	3.8	31.6	6.3	3.7	27.7	9.3
	사무 종사자	4.4	10.8	6.1	22.9	10.3	2.0	22.9	8.6
	서비스·판매 종사자	21.2	22.8	39.8	34.3	38.6	12.5	59.9	38.4
	숙련·기능원·장치,기계종사자	23.2	17.7	8.2	2.8	12.7	6.8	39.6	25.0
	단순노무자	49.3	21.7	42.0	8.4	54.5	34.3	70.3	59.2

주 : 1) 산업 가운데 사회서비스업에는 O: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에는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등, H: 운수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K: 금융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업, S: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2) 숙련·기능원·장치, 기계종사자는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Ⅲ. 저임금근로 비중 요인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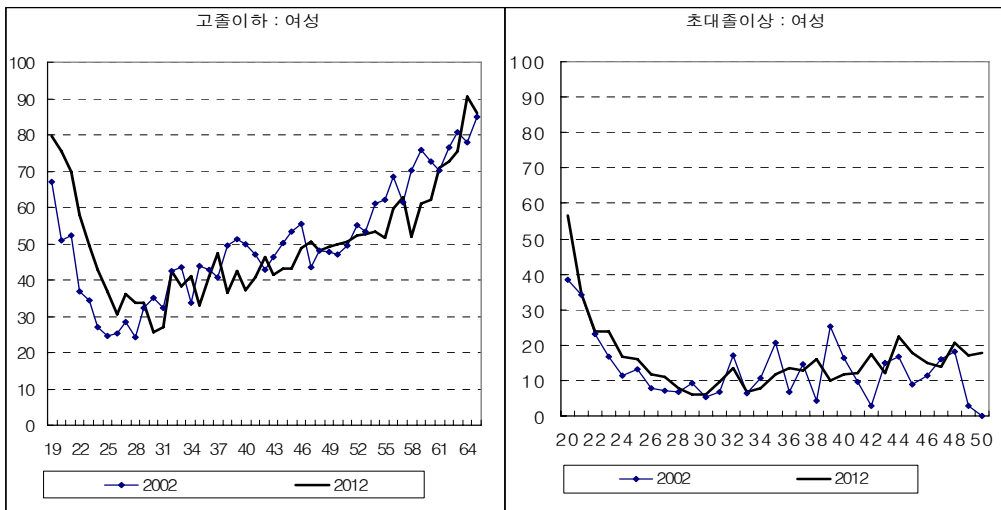
1. 10년간 저임금 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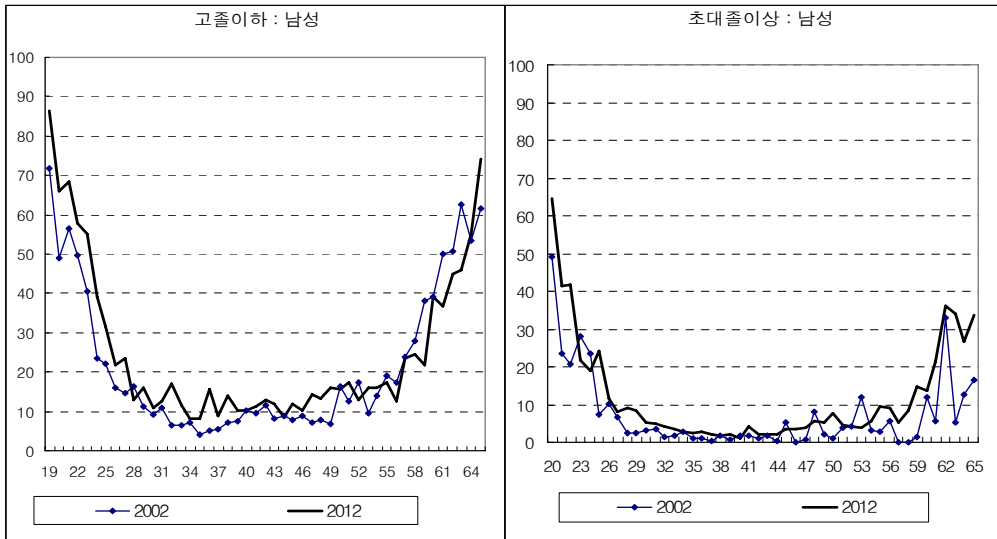
2002년→2012년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2%→24.8%로 1.6%p 증가하였고 이는 여성 저임금 비중(38.1%→37.1%)보다는 남성 저임금 비중(12.9%→15.5%)의 증가 영향이 작용한 결과이다. 연도별 변화를 학력별·연령별로 세분화해 보면, 남성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과 2012년 모두 학력과 무관하게 완만한 U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5 참조). 특히 고졸 이하 저학력 남성은 30~40대 핵심연령에서 2002년과 2012년 모두 10% 수준의 저임금 비중을 보이고 있고, 초대졸 이상 고학력 남성은 2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폭 넓은 연령대에서 2002년, 2012년 모두 10% 미만의 낮은 저임금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고졸 여성에서는 2002년과 2012년 모두 30세를 기점으로 V자 형태를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 반면, 고학력 여성에서는 L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저학력 여성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에 비해 2012년 다소 줄어들었으며, 특히 핵심연령인 30~49세 구간에서 감소했다. 그래도 여전히 30세를 기점으로 V자 형태는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 저학력은 2002년에 비해 2012년 29세까지 저임금 비중이 각 연령대에서 약 10%p씩 늘어난 반면, 이후 연령에서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학력구성에 따른 성별·연령별 저임금 비중 추이(2002년, 2012년)

(단위: %)





주: 1) 19세 이하를 19세로, 65세 이상을 65세로 합쳐서 나타냄.
 2) 여성 초대졸 이상은 20~50세까지 나타냄.
 3) 각 연령별 임금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2년, 2012년 8월.

2. 저임금근로 비중 요인분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별·연령별·학력별로 저임금근로에 기여하는 정도가 각기 다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력별 인구 변화는 저임금근로 비중의 변화에 혼재된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각 집단이 저임금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임금 비중을 요인분해¹⁾ 할 필요가 있다. 즉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 비율인 저임금 비중을 집단별로 분해해 어떤 집단의 요인이 저임금 비중 증가에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해 보도록 한다.

저임금 비중 변화는 집단 간 비중이 변화한 구성효과와 집단별 저임금 비중 변화로 구분해 각각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t 시점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emp 를 n 개의 집단으로 나눌 경우, 전체 저임금 비중 low_t 는 개별집단 $emp_{it} (i = 1, \dots, n)$ 의 저임금 비중을 가중 평균한 값이다.

$$low_t = \sum_{i=1}^n s_{it} low_{it} \quad (\text{이때, } s_{it} = \frac{emp_{it}}{emp_t}, low_{it} = \frac{L_{it}}{emp_{it}}, L_{it} \text{는 저임금근로자})$$

1) 남재량 외(2005)의 실업률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제 저임금 비중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begin{aligned}\Delta low &= low_t - low_{t-1} \\ &= \sum_i \Delta s_{it} low_{it-1} + \sum_i s_{it-1} \Delta low_{it} + \sum_i \Delta s_{it} \Delta low_{it}\end{aligned}$$

마지막 식의 첫째 항은 각 집단의 저임금 비중이 $t-1$ 기 상태로 유지된 상태에서 각 집단의 구성비 변화만 있을 때, 전체 저임금 비중의 변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보여주는 ‘구성효과’이다. 둘째 항은 $t-1$ 기의 집단 간 구성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각 집단의 저임금 비중이 변화해 전체 저임금 비중을 변화시킨 정도를 나타내고 이를 ‘저임금효과’라 한다. 마지막 항은 시간이 이산적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항이다.

<표 3>은 2002~2012년에 걸친 저임금근로 비중 변화를 성별·학력별로 나누어 요인 분해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2002~2012년 10년간 저임금근로 비중은 23.23%→24.76%로 1.53%p 증가하였는데 이는 -2.50%p의 구성효과와 4.70%p의 저임금효과, -0.67%p의 오차로 구성된다. 각 집단별로 세분화하면 저임금 비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저학력 남성은 2002~2012년에 걸쳐 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구성효과는 음(-)의 값을 나타냈다. 저학력 남성의 저임금효과(2002년 저학력 남성의 임금근로자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는 전체 저임금 비중을 2.63%p 증가시키고 있다. 오차까지 포함하면 2002~2012년 저학력 남성 집단은 최근 저임금 비중 변화를 0.47%p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30.6%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저학력 여성의 구성효과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학력 남성보다 감소효과가 더 커 -2.00%p를 보인다. 한편 저임금효과(2002년 저학력 여성의 임금근로자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는 전체 저임금 비중 변화를 1.61%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차를 포함한 결과 저학력 여성 집단은 최근 저임금 비중 변화를 0.61%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의 경우 남녀 모두 두 기간에 걸쳐 임금근로자 비중이 모두 상승(남성 21.1%→28.1%, 여성 11.7%→17.6%)해 구성효과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냈다. 또 저임금 비중도 남녀 모두 상승(남성 3.8%→5.7%, 여성 13.5%→13.9%)해 저임금효과도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를 오차항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보면 고학력 집단은 남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학력 남성은 0.80%p, 고학력 여성은 0.87%p씩 전체 저임금 비중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2002~2012년의 저임금 비중 변화에는 모든 집단에서 저임금효과가 영향

이 있었지만, 특히 남성 저학력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학력 집단에서 남성은 저임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구성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여성 고학력화로 인한 임금근로 비중 증가가 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학력의 높은 기여도(남성 52.7%, 여성 56.8%)를 보이고 있다.

<표 3> 저임금 비중의 성별·학력별 요인분해

(단위: %, %p)

	구성비		저임금 비중		요인분해			
	2002	2012	2002	2012	구성효과	저임금 효과	오차	전 체
남성저학력	37.7	29.1	18.0	24.9	-1.56	2.63	-0.60	0.47(30.6)
남성고학력	21.1	28.1	3.8	5.7	0.26	0.41	0.13	0.80(52.7)
여성저학력	29.4	25.2	47.9	53.4	-2.00	1.61	-0.23	-0.61(-40.1)
여성고학력	11.7	17.6	13.5	13.9	0.79	0.05	0.03	0.87(56.8)
전 체	100.0	100.0	23.2	24.8	-2.50	4.70	-0.67	1.53(100.0)

주: ()안은 전체 저임금 비중 변화에서 집단별 저임금 비중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2년, 2012년 8월.

<표 4>는 <표 3>의 인구집단을 연령범주로 확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저학력 남성의 경우 15~49세는 구성효과가 음(-)의 값을 보이는 반면, 50세 이상은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저임금효과는 50~59세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다른 연령범주에서는 양(+)의 값을 나타낸다. 구성효과와 저임금효과, 오차를 종합적으로 본 결과 저학력 남성은 15~39세는 저임금 비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반면, 4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저임금 비중 변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 고령층은 구성효과가 저임금효과나 오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학력 여성의 구성효과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5~49세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저임금효과는 30~59세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에서 구성효과와 저임금효과, 오차를 종합한 저학력 여성 집단은 음(-)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15~49세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9세는 -0.85%p, 30~39세는 -1.67%p의 높은 감소효과를 보였다.

저학력의 경우 남녀 모두 50세 이상에서 구성효과가 양(+)의 값을 보이고, 특히 저학력 여성의 경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학력 고령층에서 임금근로로의 진입이 확대된 영향인데, 이들은 주로 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생계유지를 위해 저임금근로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저임금 비중의 성별·학력별·연령별 요인분해

(단위: %, %p)

		구성비		저임금 비중		요인분해			
		2002	2012	2002	2012	구성효과	저임금 효과	오차	전 체
남성 저학력	15~19세	0.9	0.6	71.8	86.4	-0.17	0.13	-0.04	-0.08
	20~29세	8.5	4.2	25.9	37.7	-1.13	1.01	-0.52	-0.64
	30~39세	11.1	5.8	7.1	11.8	-0.37	0.52	-0.25	-0.10
	40~49세	9.3	7.4	8.8	12.1	-0.17	0.31	-0.06	0.07
	50~59세	5.5	7.2	18.5	17.3	0.31	-0.07	-0.02	0.23
	60세 이상	2.4	3.8	54.6	59.8	0.78	0.12	0.07	0.98
남성 고학력	15~19세	0.0	0.0	-	-	0.00	0.00	0.00	0.00
	20~29세	5.2	4.6	7.6	12.2	-0.04	0.24	-0.03	0.17
	30~39세	9.4	11.3	1.9	3.2	0.04	0.12	0.03	0.18
	40~49세	4.8	8.1	2.1	3.2	0.07	0.05	0.04	0.16
	50~59세	1.4	3.4	3.7	6.5	0.07	0.04	0.06	0.17
	60세 이상	0.5	0.7	14.9	28.3	0.03	0.06	0.03	0.12
여성 저학력	15~19세	1.3	0.8	66.9	79.5	-0.30	0.16	-0.06	-0.20
	20~29세	7.1	3.2	34.9	50.6	-1.35	1.11	-0.61	-0.85
	30~39세	7.1	3.5	42.1	38.0	-1.52	-0.29	0.15	-1.67
	40~49세	8.1	7.5	48.4	45.3	-0.33	-0.25	0.02	-0.56
	50~59세	3.8	6.7	58.4	54.0	1.72	-0.17	-0.13	1.43
	60세 이상	2.0	3.5	79.4	81.1	1.19	0.03	0.03	1.25
여성 고학력	15~19세	0.0	0.0	-	-	0.00	0.00	0.00	0.00
	20~29세	7.4	6.8	14.6	14.7	-0.09	0.01	0.00	-0.09
	30~39세	3.0	6.4	11.4	10.5	0.38	-0.03	-0.03	0.33
	40~49세	1.0	3.4	11.9	15.6	0.28	0.04	0.09	0.40
	50~59세	0.2	1.0	7.2	22.5	0.05	0.03	0.11	0.20
	60세 이상	0.0	0.1	38.3	36.2	0.03	0.00	0.00	0.02
전 체		100.0	100.0	23.2	24.8	-0.53	3.17	-1.12	1.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2년, 2012년 8월.

고학력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서 20~29세에 구성효과가 음(-)의 값을 보이고 저임금효과는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 고학력자의 저임금효과가 뚜렷하다. 20대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임금근로 비중이 감소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효과와 저임금효과, 오차를 종합한 결과 30세 이상 고학력자는 남녀 모두에서 성·연령 집단에서 모두 양(+)의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은 저임금효과에 비해 구성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임금근로 비중이 증가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해 저임금근로 비중 변화를 성별·연령별·학력구성별로 나누어 2012년의 현황으로 특징을 살펴보고, 2002년과 2012년의 변화를 요인분해 하여 저임금 비중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성 저학력자의 높은 비중이 전체 저임금근로 비중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었다.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30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늘어나면서 추세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영향은 주로 고졸 이하 저학력 여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학력 내 변화보다는 학력 간 구성의 변화가 저임금근로 비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보통 여성은 30대 초반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이후 30대 중반 재진입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저학력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고학력 여성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핵심연령에서 유지되었으나 임금근로자로 제한하고 분석하면 30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음을 보였다.

성별·학력별 저임금근로 비중을 일자리 특성별로 보면 성과 학력에 무관하게 소규모 사업장에 분포가 높고, 발생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저학력에서는 남녀 모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분포가 높고, 저학력 여성은 사회서비스업에 1/3이 몰려 있었다. 특히 저학력 여성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저임금 발생비가 높았다. 직종별로 보면 저학력에서 단순노무업에 성과 학력에 무관하게 저임금 구성비와 발생비가 모두 높았다.

2002~2012년 저임금근로 비중 변화를 요인분해 한 결과 성별·학력별 모든 집단에서 저임금효과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저학력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학력의 경우 남성은 저임금효과가, 여성은 구성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여성 고학력화 영향으로 임금근로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성효과, 저임금효과, 오차를 모두 종합한 결과 2002~2012년 저임금 비중이 증가한 데는 고학력자가 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2년의 현황으로 보면 저임금 비중은 여성 저학력이 주도하고 있지만, 10년 전인 2002년과의 변화에서는 고학력화에 의한 고학력자 기여도가 높게 작용한 영향으로 격차가 증가한 것이다.

저임금근로자는 몰려 있는 직종이나 산업이 한정되어 있고, 근속이 짧으며 근로시간도 이중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 그리고 유리천장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한계점 등 때문에 근속을 유지하기 어렵고, 경력단절로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으며, 재진입 시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

히 30대 이후 저임금근로로 유입되어 남아 있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코호트 분석으로 핵심연령층에 대한 학력별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KLI

<참고문헌>

남재량 외(2005), 『고용불안계층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외(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